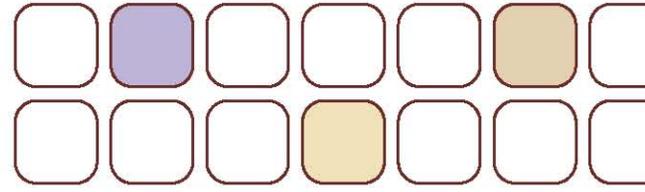


# VD RADAR



## 벤처관련

### 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투조합의 투자 의무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투조합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40%'로 낮추어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속 투자, M&A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되 투자 후 최소 6개월 유지, 최대 7년까지만 가능토록 하여 단기 차익 추구 및 영구 지배는 방지한다. 종전에는 업력 7년 이상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시기의 제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셋째, 창투사가 PEF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 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넷째, 출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일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 상호간 거래는 금지한다

다섯째,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투조합의 최소 규모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출자금을 분할 납입 하는 경우 최초 납입액은 종전과 같이 10억 원으로 유지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해외조달시장 정보제공 시스템 대폭 개편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조달시장정보시스템(www.b2g.go.kr)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이번

개편내용을 보면, 해외조달시장의 프라이컨트랙터 정보 10만여 건, 조달벤더 정보 20만여 건, 각 기관별/품목별 계약실적 정보 500만여 건 등이 추가 구축됐다. 특히, 주요 국가별 시장동향·입찰정보·진출방안, 해외정부의 입찰·계약 관련 서식 진출가이드 등의 콘텐츠를 보강했다.

또한, 진출에 관심있는 국가·품목 등 조건에 맞는 입찰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중요입찰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이번 개편은 북미 지역과 유럽연합, 국제기구 및 아시아 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중점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입찰정보는 매일 500여 건 이상 제공될 계획이다.

### 올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746억 지원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대비 5.4% 증가한 778억 원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투입한다. 우선, 공공기술의 이전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인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신규로 지정·육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술평가와 컨설팅, 사업화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전략수립, 기술 융·복합, 기술평가 및 거래, 창업 및 인큐베이팅, 투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대덕특구내 연구소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특별법에 의해 대덕특구내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제한되었던 것을 법률 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허신탁관리제도가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미활용 특허를 집중 관리하고, 이전·사업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신규설립기업 또는 초기기업에 대해 과제당 1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테크노파크협의회(회장 남헌일)와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창업하여 시제품 개발 등 성장기기를 마련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08년 하반기부터 프리보드를 통해 추가적인 민간자본 조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지원 창업과 민간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연계하는 선순환 과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투자유치지원, 대외홍보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중기청, 창업교육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 일괄지원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에서 자금, 입지등의 사업화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적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패키지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로 발굴된 예비창업자에 대해 정보처리, 화학제품제조 등의 창업유형에 따라 담당 멘토를 지정하는 등의 대상자별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개인별 수준에 맞는 창업계획 수립, 마케팅 방법, 벤처캐피탈 활용 등의 자금조달 방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30시간)을 실시하는 한편, 실제 창업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설정하여 모의창업(30시간)을 실시하는 등 실제창업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3단계로는 중소기업지원기관중기청, 기보, 중진공,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창업자별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기술창업패키지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의 창업 초기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문의 및 신청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업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지식서비스(컨설팅) 맞춤형 전문인력 키운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지식서비스분야 중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현장 중심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계구축을 위해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학원은 컨설팅학 석사(또는 석·박사)학위과정으로 국내외 컨설팅사 및 해외대학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형 교육과목 편성, 인턴프로그램 운영, 현지 컨설팅트트의 강의 참여등을 통해 컨설팅 현장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컨설팅 R&D센터는 실증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통한 산학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대학원과 함께 부설 연구소로 설치·운영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알림마당) 및 쿠폰제 컨설팅지원([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웹사이트

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하여 6월27일(금)까지 신청대학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 수요자 맞춤형 SW전문인력 1,300명 양성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화는 교육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SW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존 공급자 주도로 진행되던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SW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SW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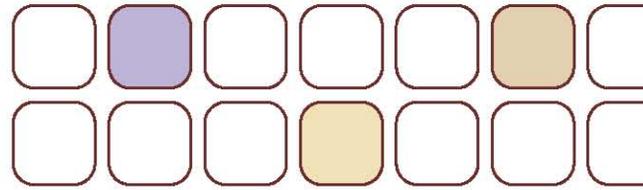
지난해는 31억 5천만 원이 투입되어 25개 컨소시엄이 제안한 38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851명의 SW산업 종사자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SW전문인력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는 약 1,300명의 SW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교육수요자의 수준별로 Track I(재직자 고급과정), Track II(재직자 중급과정), Track III(초급과정) 등으로 특화된 3개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6월11일(수)까지이며 6월중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타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등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인력양성팀(02-2141-5733) 또는 홈페이지([www.software.or.kr](http://www.software.or.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기업도우미센터,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특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화는 기업도우미센터가 기업애로의 해결사로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단 등을 통해 각종 기업애로를 접수받은 것은 물론, 인천, 경기, 광주, 경남 등 전국 의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총 201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이 가운데 27건은 해결을 완료하고 174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아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공장 증개축에 따른 입지 규제 완화가 72건(35.8%), 기반시설 지원요청이 52건(25.9%)으로 기업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금·세제 26건(12.9%), 판로 13건(6.5%), 인력 7건(3.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그동안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총 201건, 미해결 174건)을 중요도에 따라 단순, 중급, 상급, 핵심 과제로 구분하여 중급과제부터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체계적인 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VD RADAR



## 중국지역 경제정보 책자 발간

국정원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중국지역 경제정보 제하리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중국을 동북지역·북부연안지역·동부연안지역 등 8대 광역 경제권으로 분류, 각 권역별로 최근 경제동향, 주요 산업단지 대표기업 현황, 정·재계 저명인사 등을 종합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투자유망 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을 소개, 중국 진출시 사전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부록에는 장려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 등을 분류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과 노동계약법·소득세법 등 올해부터 달라진 관련법령도 함께 수록했다. 국정원은 동 책자를 재정부·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KOTRA·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유관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의 발간자료 코너에도 게재,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 경영닥터제 중소기업 매출 향상에 기여

퇴직 CEO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자문 프로그램(이하 '경영닥터제')이 협력사의 신규사업 확대, 매출 향상 등 참여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닥터제에 대한 평가를 담아 최근 발간한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경영자문 시범사업사례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닥터제가 대중소기업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한편, 경영자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문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 무료 경영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지역벤처

## 전남도·중기청 공동 수출상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미래성장 제품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수출상품개발 지원사업'을 광주전남중소기

업청과 공동 추진한다. 수출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제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상품, 기존

수출제품의 성능개량 및 디자인개선, 대형 수출제품의 축소모형제품 개발 등을 위해 업체당 1천만 원 한도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체 수출계획과 제품의 해외시장성 조사 내용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또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개발제품의 수출실적을 전남도와 광주전남 중기청에 제출토록 해 업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체로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전남도수출정보망(jexport.or.kr) 공지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전북도, 지역IT특화연구소 유치성공

전라북도(지사 김원주)는 '자동차용 임베디드시스템 특화연구소'가 지식경제부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2008 지역IT특화연구소'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2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 유치로 주관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은 과학연구단지내에 IT특화연구소를 개소하며 사업비 총 1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대학·R&D기관 중앙및지역정책기관·기업이 함께하는 임베디드시스템 특화연구소'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전주대와 전북대, 원광대, JAIC 및 도내기업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IT산업의 고도화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과제들을 집중연구하게 된다.

## 조선·자동차 IT융합부품연구센터 부산 유치

부산시는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IT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08년도 지역IT특화연구소'사업에서 부산시의 「부산지역 조선·자동차IT융합부품 연구센터」사업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지역 조선·자동차IT융합부품 연구센터」는 부산시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동의대학교총장 강창석가 주관하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대 등 지역대학, S&T대우 등 자동차·조선 전장품업체 유시테크 등 지역 IT기업들이 참여하여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 50억, 시비 25억, 민자 39억 총 114억 원의 사업비로 선박안전진단용 광센서 네트워크, 크루즈선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자동차용 초고속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등과 같은 선박 및 자동차용 핵심 네트워크 부품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 서울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2기 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해준다. 용자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제한된다.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용자해주며, 상환조건은 연리38%, 1년 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본)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지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5월 26일~5월 30일까지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 경북도, 중소기업 외국선진 신기술 현장 파견 지원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발해서 사업비 총 5천만 원(도 30%, 중진공 70% 부담)을 들여 5월부터 12월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 외국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적 애로사항을 밀착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국선진기술지원 사업은 국내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애로기술, 선진기술 접목, 기술고도화 추진 등 중소기업에서 선진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 중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화학, 자동차, 신제품개발분야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기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원사업 분야별 맞춤형태로 업체당 5~15일 정도 기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업체 참가 신청은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공장등록증(사업지등록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경상북도 기업지원팀 FAX 053-950-3249 또는 우편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 대전시, 중소제조업체 품질경영 지원

대전광역시시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무소와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지역특화산업 벤처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을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 및 지도 분야는 품질경영 및 정보화, 공장자동화, 업무혁신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도요원과 국내외 전문가로 위촉된 컨설턴트가 맡아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042-866-0131)로 접수하면 된다.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구축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MS코리아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구축 협약 체결은 국내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다중 플랫폼 게임 시장의 창출을 선도하고, 2012년 게임산업 수출 25억 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Published in Korea' 게임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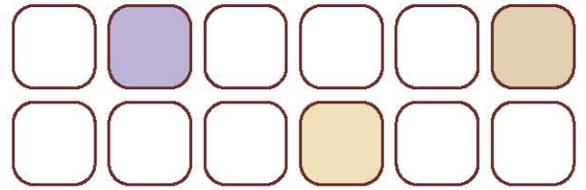
이번 협약에는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를 통하여 2010년까지 다중 플랫폼 게임 및 관련 솔루션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1,000여 명의 다중 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10개 게임기업의 해외 직접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008 중소기업 경제·경영지표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지표 및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정리하여 「2008 중소기업 경제·경영지표」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통계청의 「공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등 국내 자료와 미국 등 해외 5개국 정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종사자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 통계를 산출한 것이다. 책자에는 우리나라 국민경제, 산업활동 등 국민경제총괄지표와, 벤처기업 및 중소 제조업,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투자 등 중소기업 관련 통계,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가 담겨 있다.

본 책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VD RADAR



## 해외벤처

### 美 벤처투자, 빛(Light)에 꽃히다

머큐리뉴스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이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고효율 조명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D는 기존 반도체 생산 기술 및 공정을 활용할 수 있

는데다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과 유통점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 교체에 본격 나서면서 시장이 급팽창 중이다.

월마트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지역에 판매한 절전형형광등(CFL)은 총 1억 개로 올해는 같은 수량만큼의 LED 조명이 팔릴 것으로 회사측은 예측하고 있다. 월마트는 또 자체적으로 야채 냉장 코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내부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실리콘밸리 시장조사기관인 클린테크 그룹은 지난 1분기 이 지역에서 조명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바이오 연료와 태양에너지 등 급부상 중인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의 뒤를 잇는 금액으로 상당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실리콘밸리 CEO는 수업을 좋아해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인터넷판에 수업을 기른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소개하는 이색 기사를 실었다. 포천은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 겸 CEO 와 래리 엘리스 오리클 회장, 에드윈 캐트물 픽사 CEO,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스 그리고 온라인 이미지 공유사이트 플리커의 스튜어트 버터필드 등 수업을 멋지게 기른 실리콘밸리 CEO 8명을 소개했다. 포천은 버터필드 플리커 CEO 수업을 가장 멋진 수업으로 평가했다.

### 日·中, 3D 가상현실 손잡다

일본 기업이 투자한 중국 개발사에서 <세컨드 라이프> 시장을 겨냥한 3D 가상현실 서비스를 선보였다. <HiPiHi> 라는 명칭의 이 가상현실 서비스는 중국 업체 'HiPiHi' 와 일본의 벤처투자회사 'NGI 그룹' 의 자회사인 3D 주식회사 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함께 개발했다.

<HiPiHi> 는 지난 4월 21일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클로즈 베타 테스트 당시 회원수 4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iPiHi> 는 <세컨드 라이프> 의 1/10 서버수로 운영이 가능한 서버 운영

기술과, 새로운 아키텍처 등을 도입해 최신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 보다 더 간편한 조작감과 경쾌한 동작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오픈 베타 테스트 중인 <HiPiHi> 는 첫 번째 월드인 'Dawn of Society' 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IBM 과 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오픈 확장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세컨드 라이프> 와 동일하다.

### 사모펀드, 아시아 시장 공략

칼라일 블랙스톤 등 사모펀드들이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반면 아시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중국 산둥성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칼라일은 이번 MOU 체결로 중국 내에서 활발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일이 소유한 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인 배안스 테크놀로지는 중국 지방 합자 벤처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칼라일은 칭다오 지역의 부동산 벤처 회사에 투자했다.

한편 또 다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도 이날 홍콩을 근거지로 삼아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블랙스톤은 인수·합병(M&A) 등의 분야에서 수익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블랙스톤은 현재 아시아에서 기업 사모펀드, 부동산 펀드, 펀드 오브 헤지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 오사카증권거래소, 자스닥과 통합할 듯

오사카증권거래소와 자스닥증권거래소가 통합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지이 신문은 자스닥 경영진 가운데 그동안 두 회사 경영 통합에 반대해 오던 임원들이 6월까지 모두 퇴임하고 통합 찬성파가 남게 됨에 따라 경영 통합이 성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사카증권거래소는 자스닥 대주주 일본증권업협회 등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고 7월 TOB(주식공개매수)를 실시해 자스닥을 자회사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자스닥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일본 벤처기업 등 신형기업들이 주식을 상장하는 곳이다. 오사카증권거래소는 6월 말까지 TOB 전제가 될 시스템 일원화에 관해 자스닥의 새로운 경영진과 합의한다는 계획이다.